光州日報

광주 16/27℃ 목포 15/23℃ 여수 16/2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237호 1판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단기 4345년 (음력 4월 3일)

민주 당대표 경선 혼전속으로

광주·전남 강기정 1위…3곳 누계 이해찬 선두·김한길 추격

■민주 경선후보 지역별 득표수

순위	후보자	부산	울산	광주전남	누계
1	이해찬	353	48	371	772
2	김한길	204	103	437	744
3	강기정	145	40	488	673
4	추미애	128	61	282	471
5	우상호	160	51	111	323
6	이종걸	115	33	127	275
7	조정식	93	38	103	234
8	문용식	32	15	37	84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순회경선(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강기정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해찬 후보는 371표를 얻어 3위에 머물렀으나 누적 득표에서는 772표로 2위인 김한길(744표)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선두를 유지했다. 〈관련기사 3면〉

22일 화순군 화순읍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1인 2표 방식으로 진행된 광주·전남지역 대의원 투표에서 강 후보는 총 488표(광주 256·전남 232)를 얻어 437표를 얻은 김한길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어 ▲이해찬 371표(광주 178·전남 193) ▲추미애 282표(광주 58·전남 224) ▲이종걸 127표(광주 46·전남 81) ▲우상호 111표(광주 34·전남 77) ▲조정식 103표(광주 45·전남 58), 문용식 37표(광주 18·전남 19) 등의 순이었다.

'호남 대표론'을 들고 나온 강 후보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고, 김한길 후보는 전남에서 284표를 얻어 강 후보를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

강 후보는 '유일한 호남 후보'라는 점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는 '이해찬-박지원 역할분담론' 당사자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기반인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해 '이해찬 대세론'에 찬물을 끼얹으며 파란을 예고했다.

반면 이해찬 후보는 광주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박 위원장의 텃밭인 전남에서는 추미애 후보에게까지 밀려 4위로 물러났다. 그러나, 울산과 부산, 광주·전남 등 현재까지 3개 지역 누적 득표수는 이해찬 후보가 772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김한길 후보가 744표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어 강기정 후보가 673표, 추미애 471표, 우상호 323표, 이종걸 275표, 조정식 234표, 문용식 84표 순이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지역 투표율은 광주 87.9%, 전남 83.0%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2일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8명의 후보자들이 맞잡은 손을 높이 치켜들며 대의원들에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화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英 첼시 플라워쇼 출품 황지해 작가

광주 성원 금메달 보답

22일 영국 런던 왕립병원에서 열린 첼시 플라워쇼에서 '쇼 가든' 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황지해 작가의 작품 '고요한 시간-DMZ 금지된 화원' 앞에 관람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황지해 작가 제공〉

금메달을 받고 기뻐하는 황지해 작가.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35·광주환경미술가그룹 뮴 대표) 작가가 180년 전통의 '영국 첼시 플라워쇼(Chelsea Flower Show 2012)' 쇼 가든 부문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 부문에서 한국인 작품이 공식 초청돼 금메달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행사에 공식 초청받고도 작품 제작비 5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출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가 지역 기업들의 파격적인 지원과 성원〈**광주일보 4월 25일자 1면, 5월 3일 1면**〉을 받아 극적으로 작품을 완성하게 됐던 만큼 수상의 기쁨은 더욱 컸다.

영국 왕립원예협회는 22일 첼시 플라워쇼에서 황 작가가 '쇼 가든'부문 전시작품으로 선보인 '고요한 시간(Quiet Time)-DMZ 금지된 화원(Forbidden Garden)'이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첼시플라워쇼는 1827년 시작돼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180여년 동안 이어져온 세계 제일의 정원 및 원예 박람회로, 정원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로 통한다.

황 작가는 금강초롱, 다래, 머루 등 DMZ에 자생하는 식물 40여종을 국내에서 가지고 가 60년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천혜의 식생이 담긴 원시림으로 소생한 정원(208㎡)을 표현해냈다. 여기에 높이 8.5m짜리 경계 초소와 덩굴식물로 구성된 군사분계선 철책, 참호 등도 만들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영국군 참전용사들의 도움을 받아 정원을 조성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과 앤 공주, 에드워드·앤드류 왕자, 덴마크 왕세자 내외 등도 직접 'DMZ 정원'을 찾아와 격려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작품 제작비 5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출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가 지역 기업들의 파격적인 지원과 영국 현지의 참전용사들의 모금운동 등 국내외의 아낌없는 성원을 받아 극적으로 작품을 출품한 것도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황 작가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DMZ 정원을 조성하는 데 끝까지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신 광주시장과 호반건설, 남광건설 등 지역 기업들,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폼알데하이드 기준초과 도색·접착제 탓"

여수박람회 조직위 "환기 작업중…나아질 것"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이하 박람회) 전시관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3~4배 초과했다는 지적〈**광주일보 22일자 1면**〉과 관련 박람회 조직위가 22일 "환기 작업을 통해 현재 공기질은 나아졌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측정 당시 일부 전시관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유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페인트 도색 등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으로 실내공기 질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조건에서의 측정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개막 20일~10일 이전에 이뤄진 공기질 측정은 도색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일 때로, 이후 환기작업을 지속해 현재의 관람환경과 전혀 다른 수치"라면서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최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조직위는 또 "폼알데하이드는 페인트 도색, 접착제 등을 사용할 때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휘발성 물질이므로 환기를 하면 급격히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기질 측정이 이뤄진 기간에도 조직위는 1~3차 예행연습을 통해 18만여명을 박람회장에 입장시켰다. 또 이날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중인 국가관이 있어 공사 지연과 이에 따른 공기질 저하에 대한 조직위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공기질 측정에서 빠진 기업관과 독립국가관 등은 영상 상영관 등 밀실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많아 조직위의 2차 공기질 측정에는 모든 전시관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 23일~5월 4일 국제관·지자체관·해양로봇관 등지 18곳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4곳에서 폼알데하이드 유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의 여수엑스포 ▶관련기사 5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독특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쉐케탁(Sheketak)은 춤과 연극, 라이브 뮤직, 비디오 아트가 모두 혼합된 에너지 넘치고 유머러스한 멀티미디어쇼. 최근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역동적인 춤과 재미를 선사한다.

◇이스라엘 문화공연 '쉐케탁'(해양광장·오전 11시부터 3회)
◇국가의 날-스웨덴(엑스포홀·오전 10시)
◇DJ Dance Show(행상무대·밤 10시)
◇지자체 날 행사-전라북도(천막극장·오후 2시부터 2회)
◇엑스포 가요페스타-DJ DOC(천막극장 오후 8시20분)
◇해양학-해양기상 합동기술위원회 총회(컨퍼런스홀·오전 10시)

▲어제의 관람객수=4만194명(이하 22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관람객 수=42만2091명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2012.5.1~8.12

봄축제
* 제32회 곡성군민의 날 (5.1)
* 기차마을 어린이 한마당축제 (5.5~5.6)
* 제2회 섬진강 철길 철쭉축제 (5.12~5.13)
* 곡성세계장미축제기념 장미마라톤 및 걷기대회 (5.19~5.20)

2012 곡성세계장미축제
* 세계명품장미와 만남 (5.25~5.28)
* 5백만송이 장미향기와 만남 (6.2~6.3)
* 1004장미 꼬마잠자리 환경한마당 (6.9~6.10)
* 1004장미 농산물 큰잔치 (6.16~6.17)
* 1004장미공원 7080콘서트(6.23~6.24)
* 1004장미공원 라이브 콘서트 (6.30~7.1)
* 1004장미공원 장미송 콘서트 (7.7~7.8)

심청 효 가요축제
* 기차마을 어린이 가요제 (7.14~7.15)
* 심청 효 가요제 (7.21~7.22)
* 심청사랑 가요제 (7.28~7.29)
* 심청가족 가요제 (8.4~8.5)
* 심청청정고을 가요제 (8.11~8.12)